

눈길끄는 특특행정

의자에 앉으면 휴대폰 자동 충전

■ 고창군, 스마트벤치 첫선
태양광 패널 부착 벤치 제작
고창읍성 등 5곳 시범 설치



고창 월곡공원에 설치된 태양광 스마트 벤치.

고창군은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고창읍성 관리사무소 앞과 문화의전당 분수대 등 5곳에 '태양광 스마트 벤치'를 설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스마트 벤치'는 벤치에 태양광 패널을 부착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태양열 에너지를 모아 활용하는 신재생에너지 미니 발전소다. 고창군은 최근 고창읍성, 문화의전당 분수대, 군립도서관 앞, 고창실내체육관, 월곡공원 등에 스마트 벤치를 시범 설치했다. 설치된 스마트 벤치는 사람이 앉는 좌판에 태양광발전 블록이 설치돼 전기를 만들어낸다. 생산된 전기는 모바일기기 충전, 경관 조명에 사용된다.

또 가로등도 함께 설치돼 안전 확보와 범죄 예방 효과도 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건강 챙기고 선물도 받아보세요

■ 광양시, 모바일 걷기앱 운영
7만보 이상 달성 200명에
텐탈 마스크·칫솔 등 제공

광양시는 걷기 프로젝트 '걷는 기쁨 누리는 행복, 모바일 걷기앱 워크온 3월 챌린지'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2월 챌린지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챌린지는 23일부터 31일까지 9일간 목표걸음 수 7만보 이상 달성자 200명에게 상품이 주어진다. 상품은 손소독제 500ml 80개, 칫솔(5개)+텐탈 마스크(1개) 70세트, 기능성 미용마스크팩(10매) 50개로 3가지 중 원하는 상품 1개를 선택해 챌린지에 참여하면 된다. 광양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모바일 걷기앱 워크온 설치 후 광양시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한 뒤 광양시챌린지에 들어가서 '시작하기' 누르고 휴대폰을 소지한 채 걸으면

선착순으로 모바일 선물함에 쿠폰이 자동 발송된다. 광양시는 매일 1회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걷기 챌린지 이외에도 지역 소상공인과 제휴해 반경 3km 내에서 매일 6000보 걷기를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내 주변 챌린지'도 지난 9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지역주민 걷기 참여 업체는 더담 반찬전문점, 제이브루 커피숍, 광양일번지 식당(이상 광양읍), 더담 반찬전문점(중마동), 미스앤미스터, 포테이토(금호동) 등 5곳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야외활동과 각종 모임 등이 제한되는 요즘 워크온 챌린지를 통해 1인 걷기 또는 가족과 함께 즐겁게 걷기를 실천하면서 위축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선물도 챙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걷기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시민이 워크온 커뮤니티 가입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총선 라운지

"코로나 극복 비상지역위 출범" 윤준병 민주당 예비후보 선대위 구성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정읍·고창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지난 23일 '코로나 극복 비상지역위원회'(선대위)를 구성,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했다.

윤 예비후보는 비상지역위를 지방선거에서 경쟁했던 민주당 모든 계파·조직이 참여한 통합형으로 구성했다. 윤 예비후보는 당초 선대위 구성과 함께 발대식을 하려 했으나 코로나19 극복 의지를 담아 '코로나 극복 비상지역위'로 변경, 지역경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윤 예비후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정기조에 맞춰 선대위 발대식을 취소했다"며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정부 예산의 조기 집행, 지역 애로사항에 대한 신속한 중앙당 건의 등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폐철도가 열린 숲으로...

군산 금암동 도시재생 숲 준공
대왕참나무 등 9만 그루 심어

군산 금암동 신영시장 인근에 방치됐던 한화공장 및 폐철도 부지가 열린 숲으로 변신, 시민 곁으로 다가왔다. 군산시는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22억원을 들여 금암동 신영시장 인근에 방치된 한화공장 및 폐철도 부지 8754㎡에 도시재생숲을 조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산림청 미세먼지 차단숲 예산 지원으로 시행한 이 사업은 가든존, 피크닉존, 포레스트존, 디아나믹존 등 테마별로 어울리는 대왕참나무 등 16종 9만여그루의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했다. 또 파고라, 야외테이블 등 편의시설과 경관조명을 설치해 활력을 잃었던 구도심에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특히 시민이 기증한 8400만원 상당의 적피배롱나무, 황금곰솔 등 특이수목을 산책로변에 식재해 볼거리를 제공했다. 폐 철도 길에는 꽃무릇 등 계절별로 다양한 꽃을 감상할 수 있는 자생화 16종을 심었다. 군산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군산 미래의 숲 500만그루 나무심기 분위기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금암동 도시재생 숲은 원도심 녹색인프라의 중심점이 될 것"이라며 "이와 연계해 폐철도 부지를 활용한 도시바람길 숲 조성 등 국가 사업을 적극 발굴해 침체된 원도심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372개 기업·20조 투자 유치...동북아 물류허브 '탄탄'



24일 개청 16주년을 맞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역량이 앞으로 신산업 집적화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사진은 광양만권 전경. <광양경제청 제공>

개청 16주년 맞는 광양경제청
철강 등 신산업 집적화 역량 집중
여수경도지구 관광레저 개발 속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광양경제청)이 24일 개청 16주년을 맞았다. 지난 2004년 3월 24일 개청한 이후 16년동안 372개 기업의 유치와 20조5312억원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냈다. 앞으로 신산업 집적화를 통한 광양만권의 미래 신성장 동력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목표다. 24일 광양경제청에 따르면 광양항을 동북아의 물류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물류기업 유치는 물론 투자유치, 정주여건 조성과 관광개발에 집중하면

서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했다. 1994년부터 해면을 매립해 조성한 울촌산단은 현대자동차의 대항개발계약 해제로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태였지만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84%를 분양 완료했다. 울촌산단은 현대제철, 포스코케미칼, 삼우중공업 등 우량기업들이 입주해 일자리 제공과 지역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광양만권배후단지로 개발한 순천시 해룡면 신대지구는 현재까지 9개 단지 1만700세대를 분양 완료했다. 3000세대 규모의 선월하이파크 단지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세풍산단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광양알루미늄 공장을 유치하고, 광양항 배후단지 지정을 통한 물동량 창출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올해 광양항배후단지 지정을 위한 국비 21억원을 확보

했으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됐다. 세풍산단이 광양항배후단지가 되면 낮은 임대료와 관세 유보 등 초기 투자비용 절감으로 기업투자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광레저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여수 경도지구는 사업시행자인 미래에셋컨소시엄이 2029년까지 1조원 이상을 투자해 6성급 호텔과 해상케이블카, 워터파크 등 세계적 해양휴양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김갑섭 광양경제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기침체로 기업 유치가 어려움이 있지만 올해 목표인 1조원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철강·석유화학 등 기존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신산업 집적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남원 사매2터널 통행 재개
화재사고 34일만에 완전 복구

지난 2월 48명의 사상자를 낸 31층 추돌·화재사고로 차단됐던 남원 사매2터널의 차량 통행이 24일 재개됐다. 24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순천-완주고속도로 북남원IC~오수IC 구간(13.7km) 완주방향(상행)의 차량통행이 24일 오후 5시부터 재개됐다. 사매2터널의 차량 통행이 재개된 것은 터널 화재 사고가 발생한지 34일 만이다. 앞서 지난달 17일 순천완주고속도로 상행선 남원 사매2터널에서 241 탱크로리와 트레일러, 화물차량 등 30여대가 잇따라 부딪히면서 5명이 숨지고 43명이 다쳤다. 사고가 발생했던 사매2터널은 복구공사와 최종 안전점검까지 마친 상태다. 도로공사는 사고 다음날부터 내·외부 전문가 합동으로 터널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크레인 등 장비 240여대와 인력 950여명을 투입해 주·야간 현장복구 공사를 진행했다. 차량화재로 크게 손상됐던 터널 상부는 파형강판으로 보강하고 콘크리트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보수했으며, 파손된 노면도 전면 재포장했다. 터널 조명등(330개)은 고효율 LED조명으로 새로 설치했다.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도 확충했다. 터널 전방에 교통상황을 안내하는 도로전광판(VMS)을, 터널 입구에는 차량의 주행속도를 알려주는 시설물을 설치했다. 터널 입·출구부 노면 흠파기와 이동식 고속단속카메라 설치해운전자들의 감속을 유도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

Modern



Classic



Mediterranean Sea



